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37-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죽음을 마주하는 한국 사회
-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 조사

2025. 7. 2.

담당자 | 이아영 연구원

전화 | 02-3014-0089

e-mail | ay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마주하는 한국 사회

-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 조사

여론 속의
여輿論論

주요 결과

-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생애 말기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웰다잉에 대한 고민은 이제 전 세대가 마주한 공통의 과제가 됐다. 본인의 연명의료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 누적 등록자 수는 2024년 11월 기준 총 267만 명을 넘겼다.
- 이처럼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흐름이 커지는 가운데, 2025년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5월 9일 ~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관련 정책과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 전체 응답자의 89%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의 일부’라고 인식했으며, 86%는 ‘죽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다’고 답한다. 한편, 죽음에 대해 ‘가족/지인에게 간병의 부담을 줄까봐’(85%), ‘신체 거동이 어려워지는 것’(83%)이 두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 응답자 3명 중 2명은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고통 없는 임종’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꼽는다.
- 삶의 마무리에 대해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93%),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옳은 것만은 아니다’(91%) 항목에 높은 공감을 보인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의향률은 69%로 높게 나타난다(이미 등록했다: 6%).
-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47%이나, 향후 의향률은 84%로 상대적으로 높다.
- 연명의료 중단, 본인에 대한 중단에 대한 동의는 88%, 가족의 경우 64%이다.
- 조력 존엄사, 최근 3개년 모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2025년: 79%).
- 조력 존엄사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가 더 큰 고통을 준다’(48%), ‘환자의 고통없이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45%)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조력 존엄사 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준의 모호함’(34%)과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웰다잉 정책 서비스 중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36%) 및 ‘관련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36%)에 대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

죽음을 마주하는 한국 사회

-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 조사

여론 속의
여輿論論



용어 설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및 임종기 환자를 위한 통합적 돌봄 서비스로,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통제 투여와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임종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제도
- 조력 존엄사: 임종기 환자가 약물 처방 등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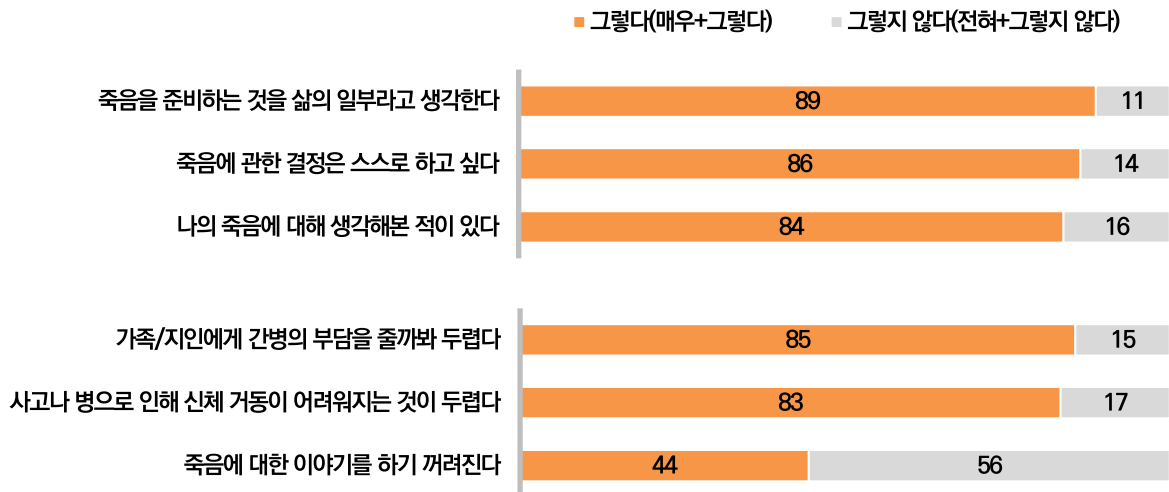
죽음, 주체적으로 준비하길 원하면서도 간병 부담은 큰 걱정

응답자 3명 중 2명, '평온함'과 '가족 부담 최소화'를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인식

응답자 대다수는 삶과 죽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일부'라는 진술에 89%가 동의하고, '죽음에 관한 결정은 스스로 하고 싶다' 응답은 86%,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84%로 나타났다. 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꺼려진다'는 응답은 44%에 그쳐,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사회 분위기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부분은 임종 이전 타인에게 끼칠 부담에 대해 큰 두려움을 드러낸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간병의 부담을 줄까 봐 두렵다'는 응답은 85%, '신체 거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두렵다'는 응답은 83%에 달한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욱 뚜렷하다.

(단위: %)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익숙해졌지만, 간병 부담과 신체 거동의 어려움은 두려워



질문: 다음 내용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내용을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연령대가 높을수록 간병 부담, 신체 거동의 어려움을 우려

(단위: %)

'그렇다' 응답		사례수(명)	가족/지인에게 간병의 부담을 줄까봐 두렵다	사고나 병으로 인해 신체 거동이 어려워지는 것이 두렵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꺼려진다
전체		(1,000)	85	83	44
성별					
	남자	(495)	82	79	48
	여자	(505)	89	86	41
연령					
	18~29세	(153)	72	77	42
	30대	(150)	84	81	47
	40대	(173)	87	82	49
	50대	(195)	87	83	43
	60대	(178)	93	87	40
	70세 이상	(151)	88	89	46

질문: 다음 내용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내용을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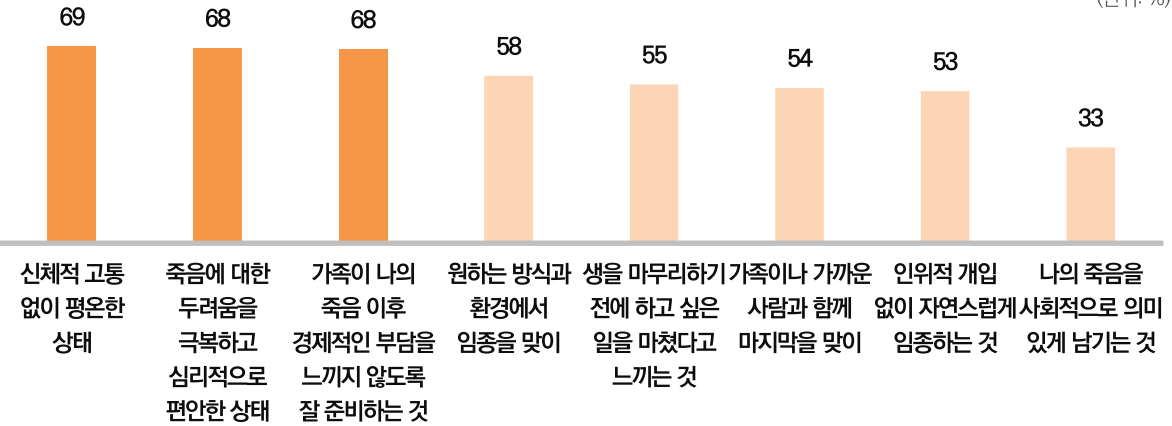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죽음을 앞둔 신체적·정서적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번 조사에서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신체적 고통 없이 평온한 상태'(69%)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68%)를 가장 많이 꼽는다. 즉, 임종기에 신체적, 심리적 평온함을 필수 조건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또, '가족이 나의 죽음 이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68%)도 높게 나타나, '나의 죽음'이더라도 남겨질 이들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 3명 중 2명,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고통 없는 임종'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중요하게 여겨

(단위: %)



질문: 다음은 '좋은 죽음'과 관련한 몇 가지 진술입니다. 좋은 죽음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좋은 죽음을 위해 필수적이다' 응답만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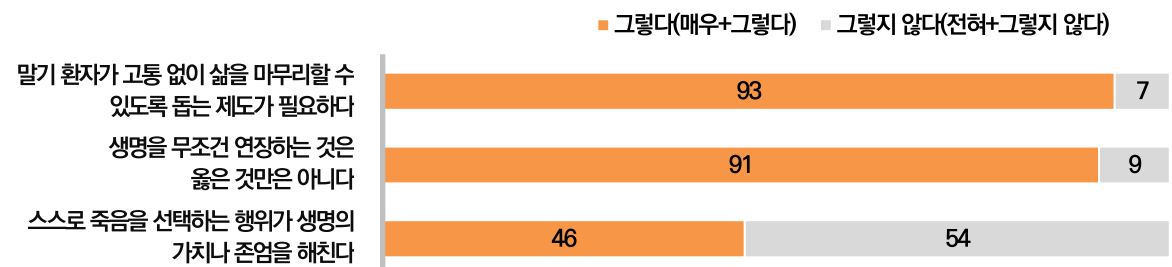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죽음에 대한 자율성 인정, 무의미한 생명 연장보다는 '고통 완화'와 '존엄한 마무리' 선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나 존엄을 해친다'는 응답은 46%에 그쳐, 죽음을 둘러싼 생명윤리적 판단에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에 대해서는 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항목에도 91%가 공감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삶의 무의미한 연장보다 '존엄한 마무리'... 웰다잉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

(단위: %)



질문: 다음 내용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내용을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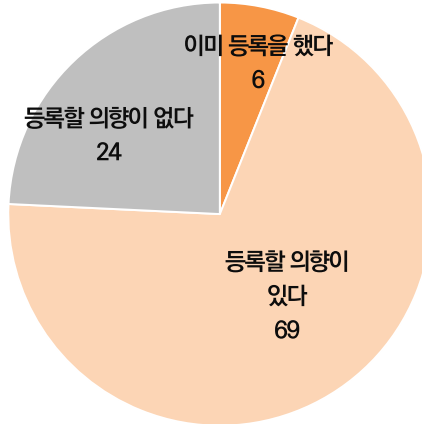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러한 태도는 실제 제도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의향률은 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 등록했다는 비율은 6%에 달한다. [현재 누적 등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선 점](#)과 이번 조사에서 높은 의향률을 함께 고려할 때, 제도를 통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려는 선택이 점진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의향률 69%



질문: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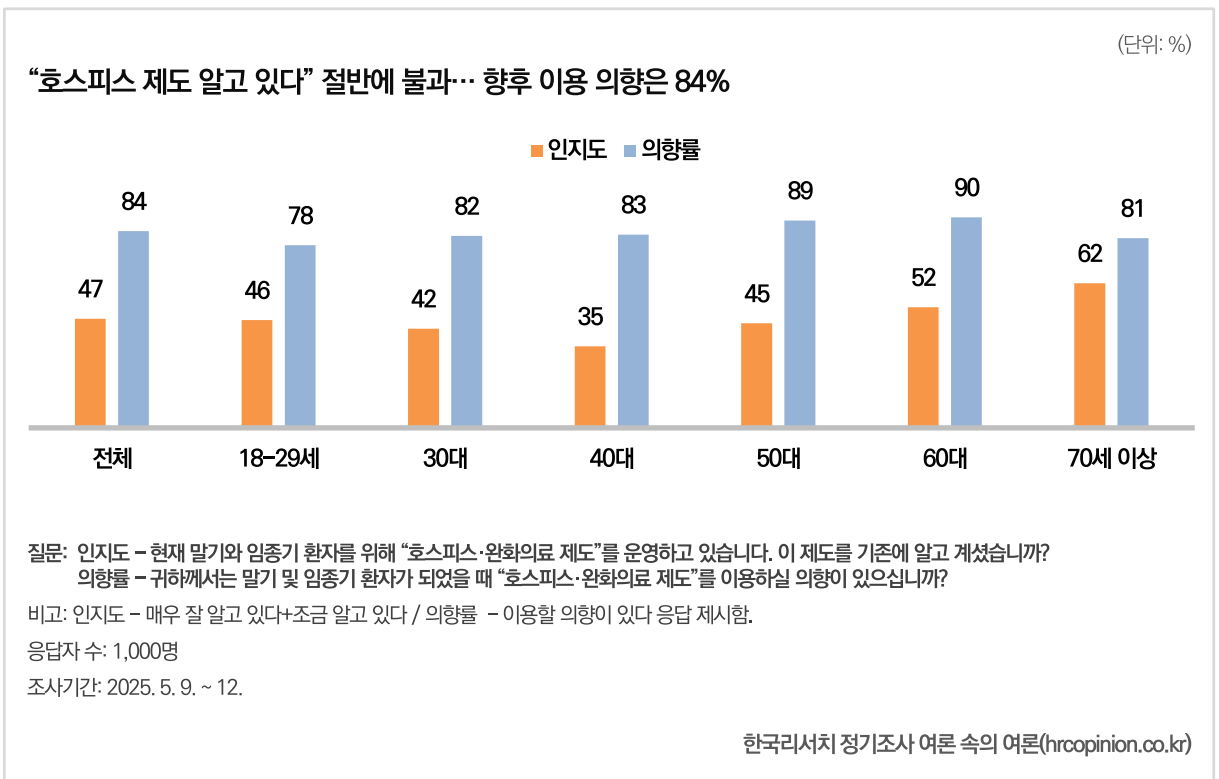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인식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인지도는 절반에 못 미치나, 향후 이용 의향은 84%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태도 차원을 넘어 죽음의 방식과 결정 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등 웰다잉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47%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40대의 인지율이 35%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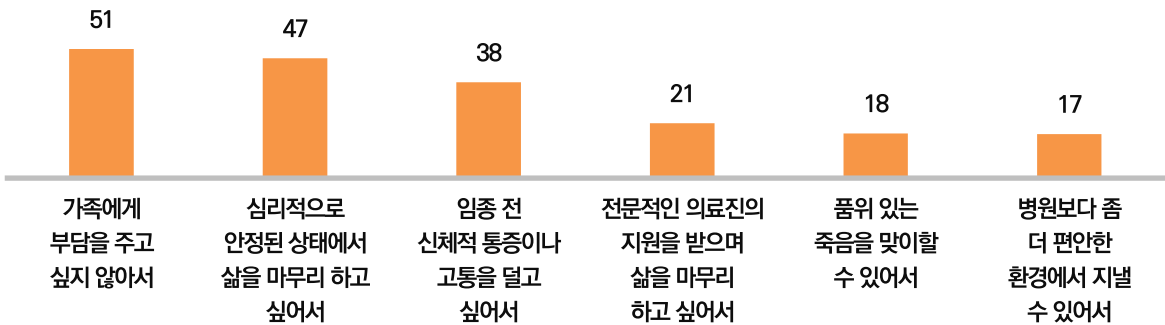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51%), '심리적 안정을 위해'(47%), '신체적 통증 완화'(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복수응답). 성별로는 남성이 '가족 부담 경감'(51%)을 주된 이유로 꼽은 반면, 여성은 '가족 부담 경감'(50%)과 '심리적 안정'(51%)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비용 부담'(48%)을 주된 이유로 언급한다. 이처럼 향후 이용 의향과 무관하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주변에 남길 부담을 덜고자 하는 심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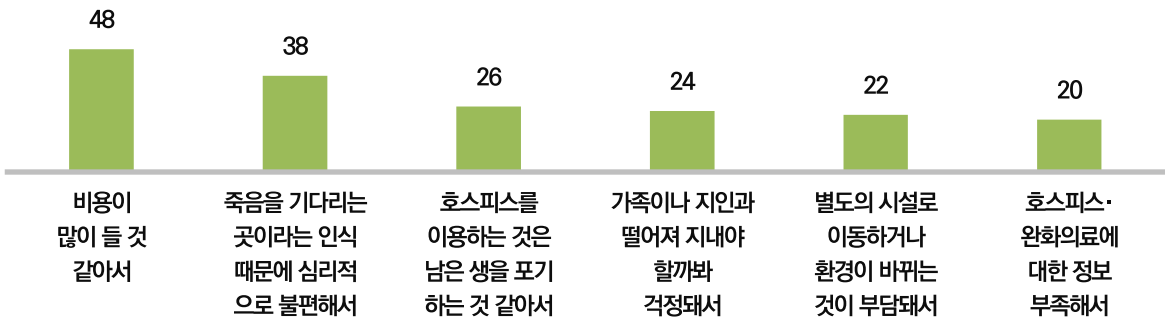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이용 의향 이유는 '가족 부담 경감', 미의향 이유는 '비용 부담'

(단위: %)

이용 의향이 있는 이유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질문: 귀하께서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 귀하께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이용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최대 2개까지 선택). 1+2순위 기준 10% 이상의 상위 항목만 제시함.

응답자 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이용 의향자 840명, 미의향자 1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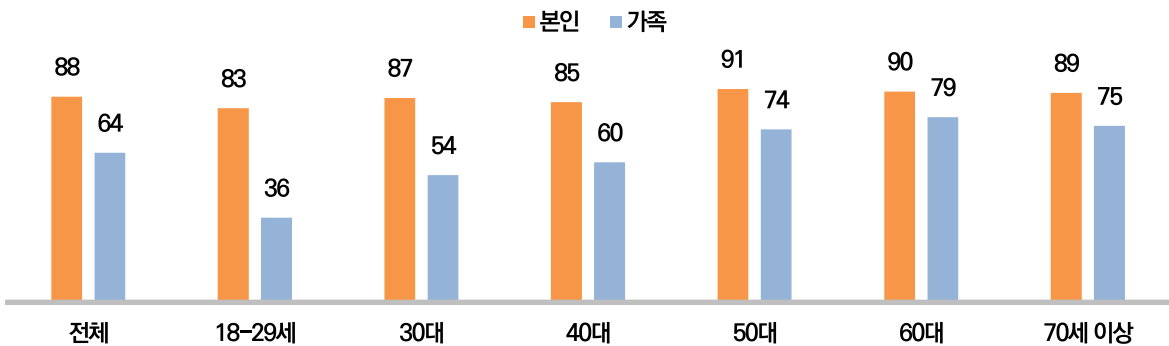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5. 9. ~ 12.

연명의료 중단, 자기결정엔 적극적...가족 결정에는 비교적 신중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상자일 경우 88%가 중단을 원하지만, 가족이 대상자일 때는 64%만이 중단에 동의한다. 가족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8%다. 특히 20대에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83%가 찬성했지만, 가족의 경우는 36%만이 찬성한다.

본인 연명의료 중단 찬성 88%, 가족의 경우 64%... 18-29세에서 인식 격차 가장 커

(단위: %)



질문: 본인 - 귀하께서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본인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족 - 귀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께서 말기 또는 임종기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로서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비고: '중단 의향이 있다' 응답만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이유로는, 본인(52%)과 가족(65%) 모두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본인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6%),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27%) 등을 주요 이유로 들며, 가족의 경우에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55%)를 꼽는다.

한편, 보호자로서 판단을 유보한 이유로는 ‘내가 보호자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55%), ‘상태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44%)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지 않으려는 주체적 태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입장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 정서적 부담과 윤리적 고민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인 및 가족 연명의료 중단 이유는 모두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 중단하고 싶어서’
가족 연명의료 판단 어려운 사람은 ‘가족의 죽음 결정 부담’이 가장 큰 이유

(단위: %)

	의향이 있는 이유 - 본인			의향이 있는 이유 - 가족			가족에 대한 판단 유보 이유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를 중단하고 싶어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를 중단하고 싶어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	환자가 가족에게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호자로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상태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전체	52	36	27	65	55	29	55	44	39	31
성별										
남자	45	41	30	59	48	30	54	42	41	30
여자	60	32	25	71	62	27	55	45	38	32
연령										
18-29세	45	35	31	55	52	17	49	49	50	34
30대	49	27	40	49	48	32	51	45	38	34
40대	41	44	34	52	52	37	52	41	37	35
50대	53	40	22	70	59	28	70	29	33	24
60대	59	38	23	75	55	26	52	45	31	24
70세 이상	65	32	16	73	57	27	67	48	31	29

질문: 연명의료 중단 이유(본인) -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연명의료 중단 이유(가족) - 보호자로서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연명의료 판단 유보 이유(가족) - 보호자로서 연명의료 중단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최대 2개까지 선택). 각각의 이유에 대한 상위 3개·4개 응답만 제시

응답자 수: 본인 연명의료 중단 의향자 878명, 가족 연명의료 중단 의향자 638명, 가족 연명의료 중단 판단 유보자 278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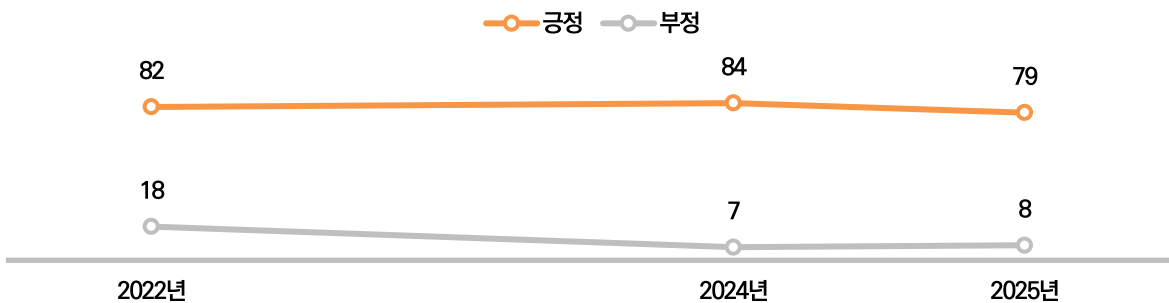
3 조력 존엄사에 대한 인식

조력 존엄사, 최근 3개년 모두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권리'에 다수 공감

이제는 완화의료나 시술 중단을 넘어 조력 존엄사와 같은 적극적인 선택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력 존엄사 제도는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79%이며 반대는 8%에 불과하다(모르겠다 13%). 2022년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서는 82%가 찬성, 2024년 조력 존엄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84%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조력 존엄사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력 존엄사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

(단위: %)

조력 존엄사 합법화,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질문: 2022년~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의원이 조력존엄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 - 귀하께서는 조력존엄사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 귀하께서는 조력 존엄사 제도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2022년 '찬성+매우 찬성' // 2024년 '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 // 2025년 '매우 동의한다+동의한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7. 1. ~ 4. // 2024. 5. 31. ~ 6. 3. // 2025. 5. 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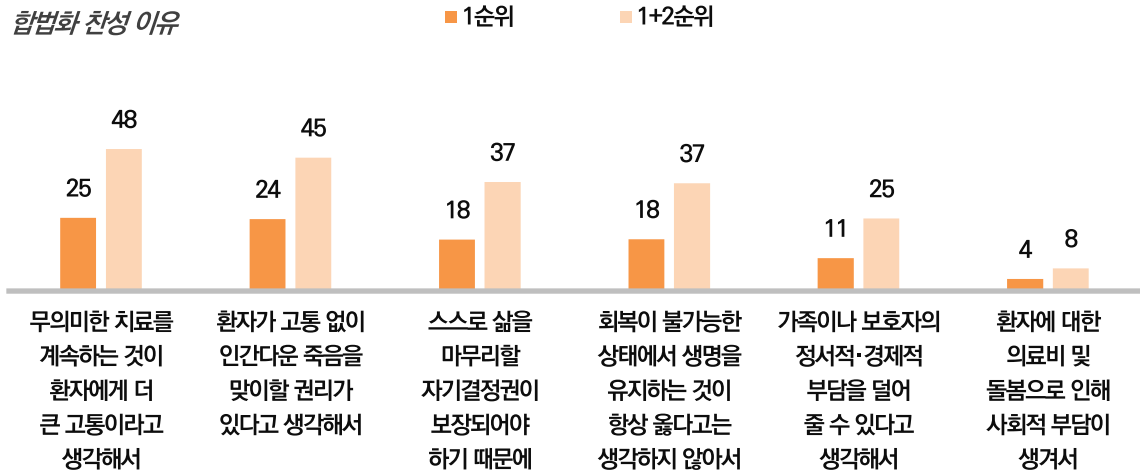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가 더 큰 고통을 준다’(48%), ‘환자의 고통없이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45%)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종교적/신념적 이유로 생명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어서’(39%), ‘죽음 결정에 대한 순간의 감정이나 외부 압박 우려’(35%) 등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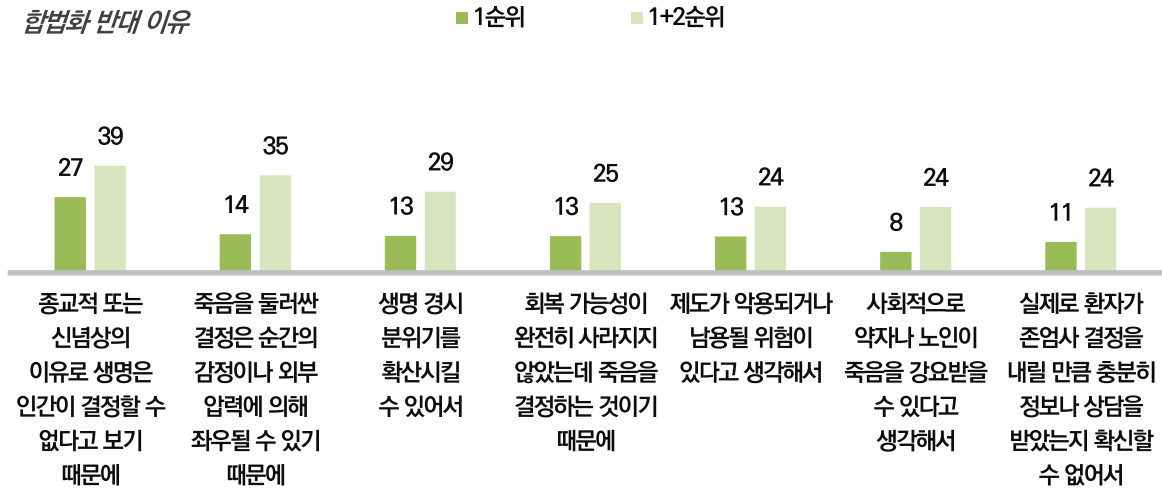
(단위: %)

조력 존엄사 찬성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반대 입장에서는, 종교적/신념적 이유로 생명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

합법화 찬성 이유



합법화 반대 이유



질문: 위와 같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최대 2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 789명, 반대하는 사람 7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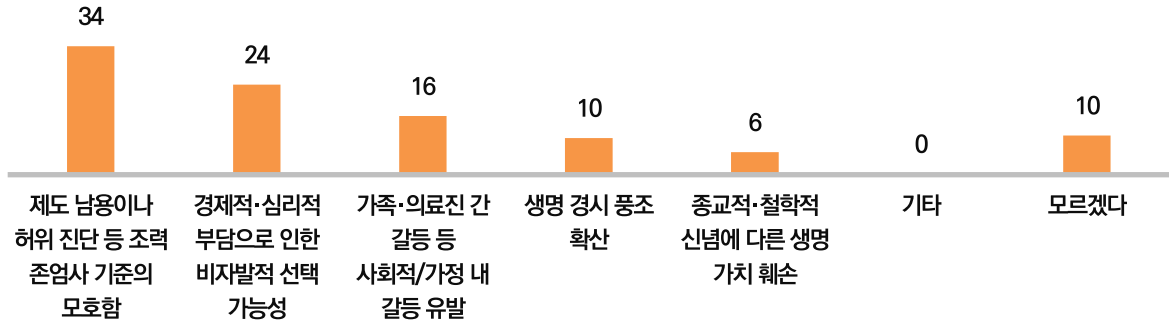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력 존엄사 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준의 모호함'(34%),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24%)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도입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이나 가족 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단위: %)

조력 존엄사 도입 시 '기준 모호성'과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 우려



질문: 조력 존엄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5. 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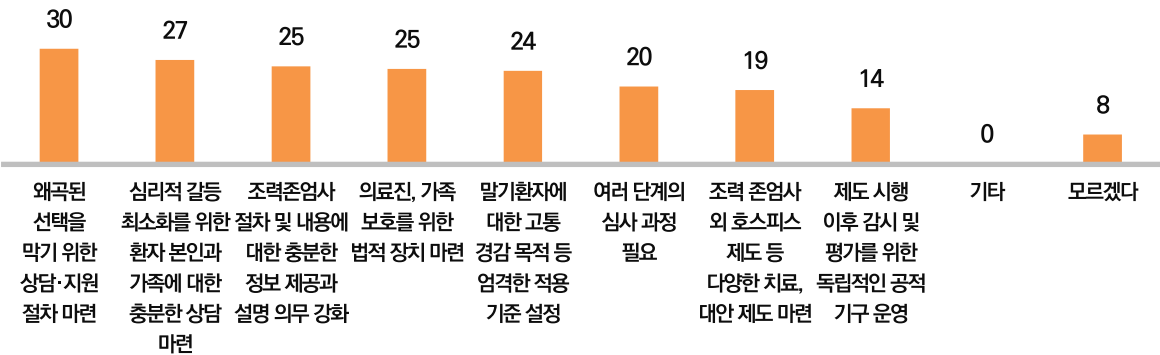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력 존엄사 제도 도입을 가정했을 때,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왜곡된 선택을 막기 위한 상담·지원 절차 마련'(30%)이다. 이어 '심리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환자 본인 및 가족 대상 충분한 상담'(27%), '제도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설명 의무 강화'(25%), '의료진과 가족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25%) 등의 응답도 높다.

성별로는 남성이 왜곡된 선택을 막기 위한 상담, 지원절차(각각 31%)에, 여성은 심리적 상담(30%) 등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 저연령층은 상담·지원 절차 마련뿐 아니라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반면,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상담과 더불어 적용 기준에 대한 설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단위: %)

조력 존엄사 도입 시 ‘상담·지원 절차’와 ‘법적 기준 마련’ 가장 시급



사례수 (명)		외국된 선택을 막기 위한 상담·지원 절차 마련	심리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환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충분한 상담 마련	조력존엄사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 의무 강화	의료진, 가족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말기환자에 대한 고통 경감 목적 등 엄격한 적용 기준 설정
전체 (1,000)		30	27	25	25	24
성별	남자 (495)	31	24	26	24	23
	여자 (505)	29	30	24	25	25
연령	18-29세 (153)	31	15	17	32	15
	30대 (150)	26	17	21	31	24
	40대 (173)	37	25	25	26	16
	50대 (195)	28	29	28	22	26
	60대 (178)	29	39	29	20	29
	70세 이상 (151)	26	35	31	18	32

질문: 조력 존엄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최대 2개까지 선택). 결과표에는 상위 5순위 항목만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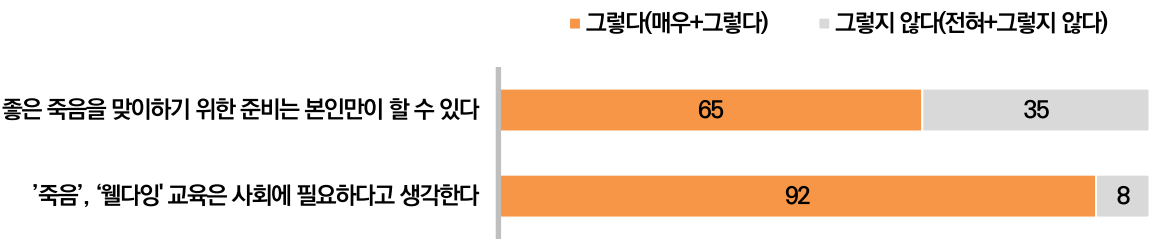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5. 9. ~ 12.

죽음을 위한 준비,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돕는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높게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의 65%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이 비율이 78%에 달한다. 동시에, 응답자 전체의 92%가 ‘죽음이나 웰다잉 교육은 사회에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95% 이상이 이에 동의한다. 이는 생애 말기 준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제도적으로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단위: %)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 개인의 몫(65%)이자 사회적 교육도 필요해(92%)



‘그렇다’ 응답		사례수(명)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죽음’, ‘웰다잉’ 교육은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1000)	65	92
성별	남자	(495)	66	90
	여자	(505)	65	93
연령	18-29세	(153)	59	85
	30대	(150)	66	90
	40대	(173)	62	90
	50대	(195)	62	93
	60대	(178)	64	95
	70세 이상	(151)	78	96

질문: 다음 내용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내용을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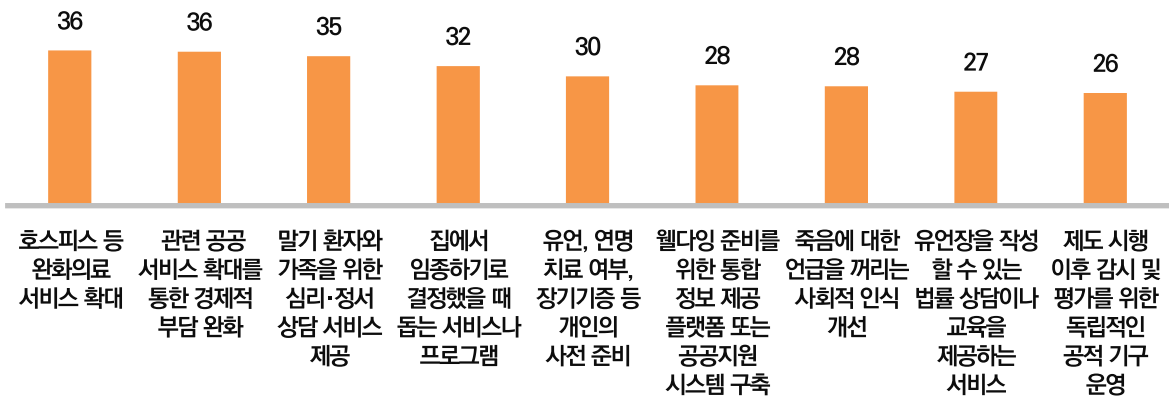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이러한 인식은 구체적인 정책 수요로도 이어진다. 특히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36%)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36%)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좋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집에서 임종하기로 결정했을 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32%), ‘개인의 사전 의사결정을 돕는 지원’(30%)에 대한 필요성도 두드러진다. 이는 웰다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항목에 대해 평균 30% 안팎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생애 말기 전반에 걸친 공공 서비스 확대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완화의료부터 사전준비까지… 웰다잉 위한 공공 지원 전반에 ‘매우 필요’ 응답

(단위: %)



질문: 고연령층 및 1인가구 비율 증가 등으로 삶을 잘 정리하고 품위있게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이 웰다잉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1,000명

비고: ‘매우 필요하다’ 응답만 제시함

조사기간: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죽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율성과 생명 존엄성 사이의 윤리적 논쟁이 따르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사회 전체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좋은 죽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관련 제도와 기준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4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5,159명, 조사참여 1,61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8%, 참여대비 62.0%)
조사일시	• 2025년 5월 9일 ~ 5월 1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